



#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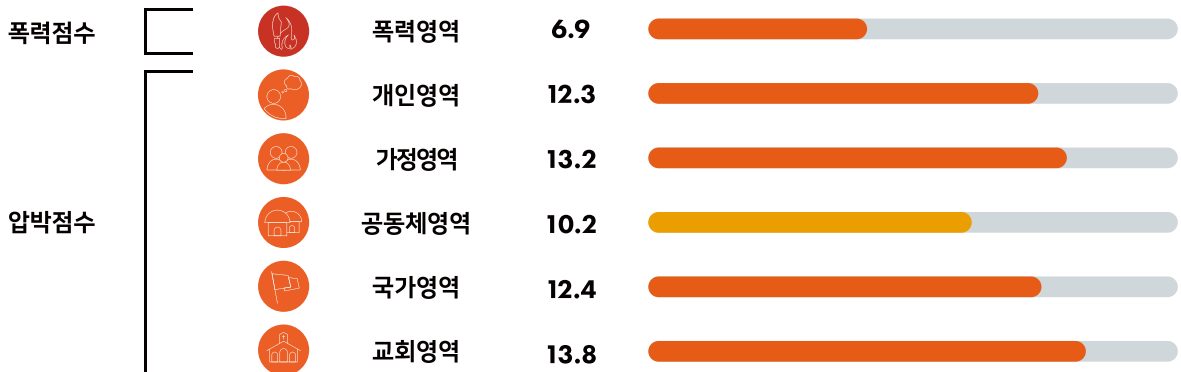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지수

33위

## 튀니지 (TUNISIA)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 중요한 발견

튀니지 기독교인들에 대한 상황을 심도 있게 조사한 한 기자는 “튀니지 기독교인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표적을 당하고, 많은 이들은 직장, 가족, 친구와 심지어 약혼자에게 버림받기도 한다. 그들은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학대 대상자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고, 신앙을 숨기기를 선택한다. 사회에 직면한 적대감과 압박 때문에 기독교인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신의 신앙을 나누는 것이 위험하다. 또한 위험과 노출 가능성으로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도 어렵다. 그들은 튀니지 보안 기관의 감시를 받는다. 튀니지에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기독교인들도 거주하고 있다. 이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으로 전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인종차별이다. 2023년 2월에 사이드 대통령이 선동적인 발언 (VOA, 2023년3월2일) 이후 인종 차별이 크게 증가 하였다. 그의 발언 후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떠났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겪는 학대를 두려워하고 있다.

# 튀니지 (TUNISIA)

## 국가 정보

지도자 : 카이스 사이드 대통령

인구 : 12,152,000명

기독교인 수 : 22,200명<sup>1</sup>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의회 공화국



## 국가 상황

| 종교 상황 | 신자 수 (명)   | 비율 (%) |
|-------|------------|--------|
| 기독교   | 22,200     | 0.2    |
| 이슬람교  | 12,092,000 | 99.5   |
| 불가지론  | 28,700     | 0.2    |
| 무신론자  | 3,700      | 0.0    |

출처<sup>2</sup>

2011년, 소위 “튀니지 혁명”은 높은 실업률, 열악한 생활 조건, 부패, 그리고 전반적인 자유 침해로 인해 시작되었다. 당시 대통령은 전복되고 아랍의 봄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후 많은 정부 (10년 동안 10개 이상의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 7월에 사이드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2022년 7월의 헌법 국민투표로 튀니지는 대통령 공화국으로 바뀌었고 대통령이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였다.

사이드 대통령은 2023년 2월에도 여러 야당 지도자와 언론 인사를 체포하는 등 모든 야당에 대한 탄압을 계속했다 (ReliefWeb, 2023년 2월 24일). 그러나 중요한 순간은 2023년 4월 야당 지도자 라흐드 간누치가 체포되면서부터였다 (알자지라, 2023년 4월 20일). 체포에 대해 전 세계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르 몽드, 2023년 5월

15일). 사이드 대통령은 2023년 2월에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인들은 “범죄와 폭력을 가지고 튀니지 인구 구성을 바꾸기 위해” 온다는 인종차별적 선동 연설을 한 후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아프리카 비즈니스, 2023년 3월 6일). 그의 발언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공동체에 대한 폭력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혈통의 튀니지인에게도 공격하게 하였다. (유로 뉴스, 2023년 3월 14일).

놀랍게도, 새 헌법은 이슬람을 국교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광범위한 이슬람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일이다. 그러나 제 5조에서 튀니지는 “이슬람 움마 (공동체)”에 속하며 국가는 “국민의 영혼, 돈, 종교, 자유가 이슬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존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 기독교 통계 2021에 따르면, 튀니지인의 99.5%가 무슬림이며, 기독교는 정부에서 외래 종교로 간주되고 원주민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은 없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튀니지 주재 기독교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큰 교단이다. 러시아 정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프랑스 개신교회와 성공회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모든 교파는 수도 튀니지에 기능하는 교회가 있으며, 주로 튀니지에 거주하는 해외 기독교인들에게 봉사한다.

<sup>1</sup>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sup>2</sup>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튀니지의 무슬림 출신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보안 기관의 감시를 받는다. 2017년 9월, 튀니지는 무슬림 여성이 비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하였다 (BBC News, 2017년 9월 15일).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이는 특히 중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사회적 반대 때문에 실제로 이 법을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New Arab, 2018년 8월 8일).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 상속에서 제외되고 자녀 양육권을 잃을 가능성도 높다.

##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보수주의가 강한 남부에서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과 사회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나 수도 튀니스와 도시 지역 개종자들은 가족의 압박에서 벗어나 익명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폭력적인 이슬람 무장 세력은 남부 국경지

역에서 활동하며 기회가 생기면 기독교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 국외 거주자 기독교 공동체들

국외 거주 기독교인들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공개적인 전도는 용납되지 않는다.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국외 거주 기독교 공동체에 포함된다.

### 기독교 개종자들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정보와 온라인에 게시된 콘텐츠를 찾는데 다소 자유롭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국외 거주 기독교인 공동체”에 포함된다.

## 박해와 차별의 주요 근원

### 이슬람의 탄압

가정의 영역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구금 당할 수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 이슬람 정권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 대통령은 튀니지를 이슬람 국가로 유지하는데 전념하며 기독교인에 대한 종교적 권리에 대한 존중은 없어 보인다.

### 독재 정치

사이드 대통령은 2021년 7월 권력을 장악한 이후 다른 국가 기관과 권력을 분산하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새 헌법은 의회의 역할을 크게 약화시키고 대통령에게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아직 그 영향은 불분명하지만,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보장되는 권리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게 된다. 사이드는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인물로 점점 더 권위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독교 공동체를 감시하고 통제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





##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여성

높은 수준의 성 학대와 가정 폭력은 지속적인 사회적 차별 규범과 결합하여 성별 격차를 보여 준다. 이는 종교적 박해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구타, 가정에서 추방, 가택 연금, 살해 위협, 강간 등 가장 광범위한 박해 (특히 전통적인 가정 내 박해)의 위험이 있다. 기혼 개종자들은 이혼과 자녀 양육권 상실을 직면해야 하는 반면, 미혼 개종자는 강제 결혼을 강요당할 수 있다. 박해의 주요 원인은 가족 내 지배적인 남성이 주도하고 이들은 기독교 공동체와 자료에 대한 접근을 막는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기독교 자료, 가르침에 접근 금지
- 자녀 양육권 박탈
- 상속이나 재산권 박탈
- 교육을 통한 차별과 괴롭힘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정에서 강제추방
- 가족에 의한 가택 연금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 언어적

### 남성

튀니지에서 가장 취약한 기독교인은 개종자들이다. 남성 개종자들은 협박, 실직, 지역사회 접근 거부, 구타, 살해 위협에 직면한다. 또한 이슬람을 떠났다는 이유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준다는 이유로 배척을 당하기도 한다. 개종자의 아내는 가족의 압력에 못 이겨 남편을 떠나게 되고, 그는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재산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할 수 있다. 반발의 정도는 남성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남성이 박해를 받으면 그의 가족은 취약해지고 보호받지 못한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교육을 통한 차별 / 괴롭힘
- 사업 / 직업 / 직장 접근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강제 퇴거 - 퇴학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
|------------|-----------------|---------------------|
| 2024       | 36              | 69                  |
| 2023       | 36              | 67                  |
| 2022       | 35              | 66                  |
| 2021       | 26              | 67                  |
| 2020       | 34              | 64                  |

박해 점수가 상승한 것은 가정과 공동체 생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압박과 폭력이 지난 해 박해 지수 4.8에서 5.4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차별과 배척을 당한다. 이들은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보안 기관으로부터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가족과 친척과, 사회적 적대적 대우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튀니지 기독교인들의 여러 가정 교회가 약탈당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 몇 명의 튀니지 기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체포된 후 경찰에게 그들의 활동에 대해 심문을 받았으며, 주로 수도 튀니스 외곽에서 발생하였다. 비록 기소된 기독교인은 없으나 이러한 공개 체포는 튀니지 기독교인들을 가족과 지역사회 앞에서 낙인을 찍어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 대부분 젊은 여성인 몇 명의 튀니지 기독교인들이 강제로 이주, 고립되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결혼을 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는 수도 튀니스 외곽의 시골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 수많은 튀니지 기독교인들이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으며 일부는 지역 사회에서 추방되어 강제로 이주하였고, 대부분 가족에 의해 강제 이주되었다.

|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 구금당한 기독교인 |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당한 기독교인 | 추방당한 기독교인 | 강제 결혼 당한 기독교인 |
|------------|-----------|-----------------------|-----------|---------------|
| 2024       | 7         | 2                     | 25        | 6             |
| 2023       | 5         | 3                     | 21        | 4             |

이 표는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에서 몇 가지 범주 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림 수가 주어졌고 (10\*, 100\*, 또는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 개인 영역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특히 시골 지역에서 가족으로부터 심한 압력을 받는다.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나거나 기독교 관련 자료를 소유하는 것은 위험하며 배척, 강제 고립, 경제적 불매운동에 처하기도 한다.

### 가족 영역

튀니지 사회는 비무슬림을 이방인으로 간주하고 수니파 튀니지 문화에 동화를 강요한다. 튀니지에서는 비무슬림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기독교인으로 밝혀진 배우자는 이혼하여 자녀 양육권을 잃을 수 있다. 개종자 자녀는 의무적인 이슬람 수업에 참석해야 하며, 부모의 종교로 인해 사회적 따돌림, 괴롭힘, 심지어 폭력을 당한다.

### 공동체 영역

개종자들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지역 사회의 괴롭힘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 무슬림 남성과의 강제 결혼

은 일반적으로 젊은 여성 개종자들에게 위협으로 사용된다. 또한 개종자들은 대학 진학을 방해받거나 입사 지원 시 차별을 겪고 사업에 보이콧을 당한다. 따라서 튀니지 기독교인들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외국 기관에 취업하는 경향이 있다. 빈번한 감시와 함께 경찰관들은 정기적으로 튀니지 기독교인들의 활동에 대해 질문한다. 새로운 여권의 간단한 요청에도 자세한 심문으로 이어진다.

### 국가 영역

많은 아랍 국가에서처럼, 샤리아 법은 입법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당국은 비무슬림을 일반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질 자격이 없는 외인으로 취급한다. 기독교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희생양으로 삼아 퍼뜨리는 미디어의 적대적인 장치는 이 정서를 이용한다.

### 교회 영역

튀니지 개종자는 자신들의 교회를 등록할 수 없으며,

1956년 튀니지가 독립한 이후 새 교회가 공식등록을 받은 적이 없다. 이미 등록된 교회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지만 특히 재산 유지, 직원 고용, 아랍어로 기독교

문헌 출판, 배포 허가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기독교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금지되어 있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튀니지는 다음 국제 조약들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방지 협약 (CAT)
4.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5. 유엔아동권리협약(CRC)

튀니지는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개종자들은 배척을 당하고 가족들에 의한 반대에 직면하며, 이혼과 자녀 양육권 상실의 위험을 받는다 ( ICCPR 제18조)
- 기독교인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괴롭힘을 받는다 (ICCPR 제18조, CRC제14조)
- 기독교인들은 공공부문의 고용에서 규제에 직면하고, 민간 부문에서 차별을 당한다 (ICCPR 제25, 26조, ICESCR 제6조)
-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논하거나 전도에 참여하는 경우, 괴롭힘과 폭력을 당한다 (ICCPR 제18조, 제19조)

##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바하이교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자신들만의 예배 장소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정부 관리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유대인 단체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정부는 유대교 회당 보안과 복구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보조한다. 그러나 2023년 5월, 인기 관광 섬인 제르바에서 열린 유대인 축제에서 보안 요원 한 명이 총기를 난사하여 유대인 순례자 2명과 군인 3명 등 5명이 사망했다 (2023년 5월 23일, 프랑스). 정부는 관광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격의 심각성과 반 유대주의적 성향을 경시했다 (알자지라, 2023년 5월 21일).

튀니지에서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이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었지만 시아파 무슬림은 차별을 경험할 수 있고 과거에도 유명 인사들이 시아파 이슬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무슬림 출신의 일부 무신론자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하고 이슬람에 대한 비판을 삼가는 등 이슬람으로 돌아가거나 무신론을 숨기라는 가족 및 사회적 압박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휴머니스트 인터내셔널, 2020년 10월 28일)



## 오픈도어의 튀니지 사역

오픈도어는튀니지에있는신자들을지지하는기도를일으킨다.

